

도시 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적복지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Economic Wellbeing of Wives

동의대학교 아동가정상담학과

강 사 이 경 옥*

Dept. of Human Ecology, Dongeui

Lecturer : Lee, Kyoung-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resource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economic wellbeing of wiv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00 participants by questionnaire.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250 wives living in the Pusan and Kyungnam regions . The data were collected by personal interviews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frequencies, correlation analysis, one way Anova, Duncan test,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was an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the economic wellbeing of wives : and (2)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economic satisfaction between households of different socioeconomic levels.

Theses results imply that a financial management program focusing on the ways to implement financial behavior effectively should be developed.

▲주요어(Key Words) : 재무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경제적 만족감(economic satisfaction)

I. 서론

가계의 사전적 용어 정의는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수입·지출의 운영 및 수지(收支). 즉, 가족 구성원의 자원배분·소비를 통한 경제단위이다(두산대백과사전에서 인용).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가계를 한정된 소득범위 안에서 자신의 효용(效用, 또는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재(財)의 수요를 결정하는 합리적 행동의 주체로 보았으며 소득과 소비 사이에는 함수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앵겔법칙(Engel's law)이나 슈바베법칙(Schwabe's law)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가계재무관리행동이 이들 법칙에 따라 쉽고 단순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 가계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인플레이션의 발생, 실업의 증가, 소득 중단의 위험성 증가 등은 가계재무 관리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와 개인의 재무관리 능력 미비 등의 이유로 가계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계가 증가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개인파산에까지 이르고 있다.(www.cyworld.com/titanum22).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계는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같은 경제적 환경과 조건 속에

* 주저자·교신저자 : 이경옥 (E-mail : deepsea24@dreamwiz.com)

서도 성공적인 재무관리를 하여 높은 경제적 복지감을 경험하는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가 있음을 볼 때(이경옥, 2000), 개인의 특성과 재무관리 능력이 경제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가계가 어떤 자원을 얼마큼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소유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계는 서로 다른 복지 수준에 도달하게 되므로(김효정, 1999) 가계를 운영하는 주체가 재무영역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가에 따라 그 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그 밑바탕이 되므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복지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계의 재무관리에 대한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가계재무관리 행동의 특성이나 재무관리의 정도 등 개별 변수의 특성 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차별성이나 재무관리 행동의 효율성 측정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더군다나 1997년 말 갑자기 닥친 외환위기를 단기간 안에 극복해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가계재무의 위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희석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가족원의 가치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무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재무관리행동이 필요하며 또한 국민경제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크므로 가계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정 경제는 물론 국가의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계 자원의 차별성을 좀 더 정확히 구별 짓기 위하여 주식, 부동산, 총자산, 부채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가계의 자산 유형과 자산의 정도에 따라 가계재무관리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알아보고 가계재무관리 행동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제적복지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봄으로써 재무관리행동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가산(家産)의 권리주체가 가장(家長)이었으나, 최근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정미선, 2006: 홍향숙, 1999 등) 가계의 관리권이 대부분 주부에게로 옮겨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재무관리행동

1) 가계재무관리행동의 개념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Titus 등(1989)은 재무관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 즉 예산수립, 가계부기록 등을 재무관리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국내 학자의 정의를 보면 김성민 등(1999)은 개인의 일생주기에 걸쳐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만족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계획, 실행, 평가, 조정의 전 과정을 재무관리로 보았다. 이기춘 등(2000)은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검, 평가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김경자(1993, 2003)도 자신의 소득과 지출, 저축에 대해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며 또한 설정된 재무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수행한 재무행동계획을 평가,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미선(2006)은 가계재무관리행동은 주부들이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행동으로 주부가 가계재무를 관리하는데 있어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하고 점검, 평가에 이르는 관리행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계를 이끌어가는 행동원리로서 가족원의 욕구를 바탕으로 재무목표와 재무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 평가,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계재무관리행동의 행동유형

Beard와 Firebaugh(1978)는 가계관리자의 관리행동 유형을 외부환경과 경계유지, 표준설정, 행동의 순서화, 현재 가정체계의 몰입 정도, 그리고 새로운 요구에 대한 적응정도에 따라 변화지향형, 안정지향형, 무적위형 관리행동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Deacon과 Firebaugh(1988)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정의 선택적 의지가 금전에 집중되기 때문에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있어서 금전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국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제한된 금전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족원의 욕구충족 및 목표달성으로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Fitzsimmons & Leach(1994)는 체계적 모형으로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른 가계재무관리 능력과 순자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인 가계재무관리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연구를 보면 박미금(1993)은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이라는 연구에서 재무관리를 가계관리의 한 부분으로 측정하고 이상협(1999)은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재무관리 척도를 계획과 수행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먼저 목표설정, 소비표준설정, 예산책정, 소득과 비용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 부문과 소비자구매, 가계부기록, 저축 및 투자, 소비습관 검토 및 평가 등의 수행 부분을 나타내는 12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홍향숙(1997, 1999), 이종혜(1993)도 재무관리를 계획과 실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재무관리부분을 소득과 세금관리, 지출관리, 부채 및 신용카드관리, 저축과 투자관리, 보험과 위험관리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조동필(2007)은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무관리를 연구하였는데 여기서도 재무관리를 계획과 실행의 과정으로 보고 소득과 세금, 지출, 부채 및 신용카드, 저축과 투자, 보험과 위험부분의 계획과 수행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그에 따른 만족에도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가계재무관리행동은 여러 하위 영역으로 그 활동을 세분화 할 수 있으며 그 하위 영역에 따라 관리 행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만족도에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복지감

1) 경제적복지감의 개념정의

가계관리자들이 가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의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복지감이다. 복지감이란 목표와 현실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Strumpel, 1973) 일정한 목표나 요구의 성취 정도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상태(Burr, 1995)라고 정의될 수 있다.

국내 연구를 보면 임정빈(1990)은 복지감의 개념을 체계론적으로 접근하여 이는 가정관리에 있어 투입, 변환과정 그리고 결과요소 중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주관적인 욕구충족 또는 목표달성의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하였으며 박미선(1993)은 복지감을 인간의 심리적 또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인 목표나 기대와 이들 목표의 달성정도로서 현실과의 사이에서 지각하는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경제적 복지감에는 두가지 개념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복지란 용어는 Pigou(1938)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된 이래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Orshanksy(1965), Weisbrod와 Hansen(1968), Moen(1980), Cramer(1982), Dunsing(1983), Quinn(1983)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Wilhelm M.S., Iams D.R. & Rudd J., 1987에서 인용).

그 이후 Fowler(1972)가 경제적 복지를 주관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개인적 느낌”으로 정의하고 이를 가계소득에 대한 걱정도의 인지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김숙이·문숙재, 1988에서 재인용)한 이래로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복지감이 더욱 널리 연구되었다.

Strumpel(1973)은 주관적인 경제복지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기 효율감(self efficiency), 운명통제력(fate-control) 그리고 가치를 고려하여 현실과 목표 사이의 차이로 보았으며 그 차이가 적을수록 복지감은 높다고 하였다.

Winter(1982)는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이 가계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측정보다 개인의 복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Studies(1984)도 특히 가계소득이 낮은 빈곤층으로 갈수록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하였고 Thoresen(1984)은 가족의 재정적 복지감과 정신적 만족 그리고 일반적인 복지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Lown, 1986에서 재인용).

그 이후 Walson & Fitzsimmons(1973)는 경제적 복지는 객관적으로는 경제적인 여러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주관적으로는 개인의 복지감이나 만족감으로서 경제생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에 의해서 측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변인으로는 소득적 정도의 인지, 소득 만족, 순자산 만족, 저축액 만족, 부채액 만족, 소비수준 만족, 재정위기에 대한 대처자원의 만족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Williams 등(1976, 84)은 복지측정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경제적 문제이며 가계의 복지를 위해서는 경제생활의 향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가계의 복지는 경제적 복지로 대변될 수 있다고 하였다.

Moen(1980)은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데 한가지 지표만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4가지 차원에서 가족의 재정적 위기를 평가하는 복합적 지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복지감의 4가지 차원이란 객관적/주관적 그리고 실제적/상대적 측면을 가진 객관적-실제적, 객관적-상대적, 주관적-실제적, 주관적-상대적을 의미한다(Marlowe J. & Godwin D. 1988에서 재인용).

객관적-실제적 측정은 가계의 평균 소득치와 부채를 조사하는 것이며 객관적-상대적 측정은 기준 년도의 실제소득과 그 이전 연도의 소득을 비교하여 도출해 내는 것이고 주관적-실제적 측정은 많은 경제적 요인(소득수준, 내구재, 필수재의 구매능력, 재정관리능력, 채무의 정도, 저축정도, 미래를 위한 준비자금)에 대한 만족감을 도출해 내는 것이고 주관적-상대적 측정은 지난 5년 사이에 일어난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정도과 그 변화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의 이론을 보면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은 실제적이건 상대적이건 간에 자원의 형태로 존재하며 주관적인 것은 실제적,

상대적 모두 만족감의 형태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생활만족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아도 Strumpel(1973)은 경제생활만족감을 가계의 목표 및 기대의 달성 정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경제생활 만족감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하위개념들을 모두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Strumpel과 Burkhard(1973)의 연구에서도 그는 개인의 경제적 만족은 소득이나 직업 등 객관적 복지의 정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회 심리적 환경과 가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경제적 만족에 관한 평가는 개인의 가치와 같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변인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복지감에 관한 앞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복지감은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의 두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이경옥, 2000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경제적 복지감은 주관적 복지감과 객관적 복지감으로 2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의 만족감과 복지감 측정에 더 적절한 의미로는 개인의 주관적 측정에 의한 경제적 복지감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복지의 주관적 측정이나 객관적 측정이나로 나누어 볼 때 주관적인 측정에 해당되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 경제적복지감의 하위개념

경제적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해 학자들이 이용하는 하위개념으로는 소득 적정감(Hafstrom & Dunsing : 1973)과 소득 향상감(Davis, E.P. & Helmick, S.A. : 1985) 그리고 소득안정감(Davis, E.P. & Helmick, S.A. : 1985)이 있다.

소득적정감이란 현재소득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며 가정경제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소득 향상감이란 현재 가정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몇 년 이내(학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3년에서 5년을 기준으로 한다)에 더 향상될 것이라고 느끼는 개인의 평가정도를 의미하며 가정경제안정감이란 현재의 경제생활 수준을 어떠한 변화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느낌에 대한 평가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소득안정도의 의미는 근로소득이 중지되었을 때 한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일정한 소비수준 또는 소비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유사시에 한 가계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비수준(빈곤선)을 또는 가계가 최소한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표준을 얼마나 오래(단위는 개월)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김경자, 1993). 이 때 소비수준은 해당기간 동안 한 가계가 부채를 전혀 갖지 않으면서 또는 긴급한 부채(총 부채의 2% 추정)를 갚아 나가면서 유지해야 할 수준으로서 사회적으로 결정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런 의미로

소득 안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같다.

먼저 Davis & Helmick(1985)는 소득수준, 소득의 규칙성, 소득자원의 다양성, 부양자 비율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이나 질병, 사고와 같은 재정적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 혹은 은퇴이후의 적절한 생활자원의 확보로 보았으며 Marlowe와 Godwin(1988)은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서 소득 안정성을 측정하려 하였고 Johnson(1989)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준비해 놓은 예비비로서 소득 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Voydanoff(1988)는 경제적 안정이 깨어진 상태를 경제적 불안상태라고 보고 고용불안정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의 감소 등으로 경제적 불안정을 측정한다 다음 이의 역수를 취하여 소득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이들 중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이 소득 적정감과 안정감인데 효용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적정도는 소비표준과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함수이며 경제적 안정도는 가계의 소비표준에 대한 소비수준의 비례함수이다. 즉 어떤 적정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가계가 반드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적정감과 안정감이 높은 상관을 가지며 실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적정감이 높은 사람은 안정감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개념이 같은 것은 아니며 늘 일치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한 예로 사업자 가계의 경우는 현재 아무리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소득을 상실할 수도 있고 부채를 질 수도 있다.

Groenland(1989)는 경제적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질적 자원과 관련된 소득 안정감(김경자, 1993에서 재인용)이라고 하였으므로 소득 안정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김경자(1993)는 소득안정감을 Modigliani와 Brumberg(1954)의 평생소득가설을 인용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평생소득 가설에 따라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각 가계의 총 효용은 평생동안 그 가계가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할 때 극대화되지만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는 은퇴나 노화 같은 예측되는 상황의 변화와 가장의 실직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의 변화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가계는 소득의 증대뿐만 아니라 안정도의 유지를 위해서도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된다고 하였다. 또한 황덕순(1995)은 Modigliani와 Due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을 인용하여 소득 안정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에서는 저축의 감소가 더 크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소비에 있어서 과거 최고 수준의 소비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가계가 주어진 경제 조건하에서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소득 수준이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가계가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3)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irginia 등(1985)은 재정적 자원의 부족이 경제적 복지감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고 하여 가계의 소득정도가 경제적 복지감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Snyder와 Nowak(1984)과 Nowak과 Snyder(1986)는 예산의 축소가 가족원의 경제적 복지감을 떨어뜨린다고 하였다(이경옥, 2004에서 재인용). 즉 지나친 예산의 축소로 가계 지출을 갑자기 줄일 경우 가족원들의 복지감은 떨어진다고 하여 적절한 소비 지출을 강조하고 있다. Deacon과 Firebaugh(1988)도 경제적 복지감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성취되므로 지나친 욕구의 억제 는 경제적 복지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Davis와 Helmick(1985)은 미래지향적일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회구를 하게 되므로 경제적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현재의 자원의 정도와 지출의 정도에 의해 경제적 복지감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즉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가 경제적복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내연구들을 보면 농가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을 측정 한 최은숙과 노자경(1991)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수 들 중에서는 가족원수와 농의 취업자수,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복지감 수준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변수들 중에는 경제 규모와 순자산, 소득빈도, 총소득, 일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인들의 생활만족감을 연구한 김영득(2003)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적음에 따라, 가족수는 많음에 따라, 월수입은 높음에 따라, 월용돈이 많음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경제적 요소 가 생활만족도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2009년 3월 30일 본교 학생 50명을 뽑아 면접원 교육을 시킨 뒤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한 비확률표본추출을 통해 각각 다섯 가계씩을 전담하여 일대일 면접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부실응답과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는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226부이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재무관리행동과 경제적 복지감은 다항목 척도를 이용하였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은 홍향숙(1999)의 척도와 정미선(2006)의 척도를 취합하여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으며 소득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의 6개 하위 관리행동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적 복지감은 Davis와 Helmick(1985), Dea-

con과 Firebaugh(1988), Virginia 등(1985), Voydanoff(1988) 등의 척도를 번역하여 수정, 보완해서 개발한 이경옥(2004)의 척도를 사용하여 소득적정감, 소득향상감, 소득안정감의 3개 하위 복지감으로 분류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산출하여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였으며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간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서는 단칸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주요 변수간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주부들의 재무관리행동은 어떠한가?

[1-2]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1> 주부들의 경제적 복지감은 어떠한가?

[2-2]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복지감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1>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재무관리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2] 경제적복지감의 하위 영역별로 재무관리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응답자들의 특성

<표 1>에서와 같이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 해본 결과 주부 본인의 학력은 고졸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17.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국졸이하가 1.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편의 학력은 국졸이 단 한명 있었고 역시 고졸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역시 대졸이 32.7%로 2위를 차지하였다. 주부 본인의 학력과 남편의 학력 분포 비율이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분포 비율에서는 주부나 남편 모두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 대학원졸, 국졸의 순서로 같은 학력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는 40대가 46%, 50대이상인 32.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30대가 16.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소득의 경우는 주부 본인의 경우 없다가 43.2%로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경우가 24.3%,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가 16.8%를 차지하였다. 남편의 소득을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표 1> 응답자들의 특성

변 인		빈 도	변 인		빈 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인학력	국졸이하	4(1.8%)	남편학력	국졸 이하	1(0.5%)
	중 출	28(12.4%)		중 출	17(7.7%)
	고 출	119(52.9%)		고 출	88(40.0%)
	전문대 출	29(12.9%)		전문대 출	38(17.3%)
	대 출	39(17.3%)		대 출	72(32.7%)
	대학원 출	6(2.7%)		대학원 출	4(1.8%)
연 령	20대	10(4.4%)	연 령	40대	104(46.0%)
	30대	38(16.8%)		50대 이상	74(32.7%)
본인소득	없 다	95(43.2%)	남편소득	200만원 미만	50(22.1%)
	50만원 미만	15(5.5%)		300만원 미만	63(27.95)
	100만원 미만	23(10.2%)		400만원 미만	64(28.3%)
	200만원 미만	55(24.3%)		500만원 미만	25(11.1%)
	200만원 이상	38(16.8%)		500만원 이상	24(10.65)
본인직업	주부, 무직	115(51.3%)	남편직업	무 직	0(0%)
	전문직	7(3.1%)		전문직	16(7.3%)
	관리직	9(4.0%)		관리직	51(23.2%)
	사무직	12(5.4%)		사무직	35(15.9%)
	판매서비스직	61(27.2%)		판매서비스직	39(17.7%)
	생산직	9(4.0%)		생산직	58(26.4%)
	기 타	11(4.9%)		기 타	21(9.5%)
경제적 자원의 특성					
총재산	5,000만원 미만	31(13.7%)	금융소득	없 다	161(71.2%)
	10,000만원 미만	36(15.9%)		있 다	65(28.8%)
	20,000만원 미만	65(28.8%)	배당소득	없 다	204(94.2%)
	25,000만원 미만	22(9.7%)		있 다	22(5.8%)
	30,000만원 미만	17(7.5%)	임대수익	없 다	202(91.8%)
	50,000만원 미만	31(13.7%)		있 다	24(8.2%)
	100,000만원 미만	12(5.3%)	이전소득	없 다	208(95.0%)
	100,000만원 이상	12(5.3%)		있 다	11(5.0%)
월상환액	30만원 미만	31(24.2%)	자가주택가치	10,000만원 미만	38(22.8%)
	50만원 미만	23(18.0%)		15,000만원 미만	43(25.7%)
	100만원 미만	32(25.0%)		20,000만원 미만	30(18.0%)
	200만원 미만	19(14.8%)		25,000만원 미만	23(13.8%)
	500만원 미만	17(13.3%)		50,000만원 미만	28(16.8%)
	500만원 이상	6(4.7%)		50,000만원 이상	5(2.2%)
부채액	300만원 미만	19(17.8%)	부채여부	없 다	119(53.8%)
	1,500만원 미만	22(20.6%)		있 다	102(46.2%)
	3,000만원 미만	16(15.0%)	전세가치	2,000만원 미만	11(19.6%)
	5,000만원 미만	22(20.6%)		5,000만원 미만	26(46.4%)
	5,000만원 이상	28(26.2%)		5,000만원 이상	19(33.9%)

* 각 셀마다 결측치값 때문에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였으며 다음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7.95로 약간 낮은 비율로 2위를 차지하여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가계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직업을 살펴보면 주부의 경우 전업주부가 51.3%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서비스직이 2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각 직업군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남편의 직업은 생산직이 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관리직으로 23.2%를 보여 생산직과 관리직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직 순이었다.

다음으로 각 가계별 경제적 자원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먼저 총재산의 경우 1억 이상 2억 미만의 재산을 가진 가계가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5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가계가 15.9%, 3억 이상 5억 미만인 가계와 5,000만원 미만인 가계가 모두 13.7%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들 총재산을 구체적으로 소득원별로 나누어 금융, 주식, 부동산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금융소득이 있는 가계가 28.8%,

없는 가계가 71.2%였으며 주식 배당금과 같은 주식관련 소득이 있는 가계는 단 22가계로 5.8%에 불과하였으며 94.2%에 해당되는 204가계는 주식관련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소득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가계는 24가계로 8.2%에 불과하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가계가 202가계로 91.8%를 차지하였다. 이전 소득의 유무에서는 5%에 해당되는 다섯 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볼 때 본 연구의 응답자 가계는 대부분이 본인이나 남편의 근로 소득에 의지하여 가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 다음으로 부채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계가 102가계로 46.2%를 차지하여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부채 원상환액을 알아본 결과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만원 미만이 24.2%로 약간 낮은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고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자가주택과 전세주택의 부동산 가치를 알아본 결과, 자가 주택의 경우 1억 이상 1억 5,000

만원 미만의 경우가 25.7%를 차지하였으며 1억 미만인 가계가 22.8%를 차지하였으며 1억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가계가 18%, 2억 이상 2억 5,000만원 미만인 가계가 13.8%를 차지하였다. 전세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가계가 46.4%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5,000만원 이상으로 33.9%를 차지하였다.

2.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 결과

1) 주부들의 재무관리행동은 어떠한가?

주부들의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영역별로 위험관리, 투자관리, 세금관리, 부채관리, 지출관리, 소득관리의 여섯 집단으로 나누어 척도를 구성한 뒤 이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성분석을 통해 크론바하 알파값을 구하고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치와 공통성값, 아이겐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표 2>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인	재무관리행동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치	공통성	아이겐값	크론바하 α	
위험 관리 행동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다	3.78	.962	.606	.667	3.08	0.835	
	보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둔다	4.03	.942	.815	.664			
	생명보험,연금,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해 놓았다	4.40	.772	4.112 (0.678)	.833			.694
	보험료가 제때 납입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38	.810	.832	.693			
	가계의 위험대비가 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3.97	.871	.814	.662			
투자 관리 행동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스크랩해둔다	2.74	1.107	.689	.475	2.66	0.779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3.32	1.027	.760	.578			
	투자할 돈을 미리 떼어 놓는다	3.80	1.109	3.211 (.799)	.648			.420
	금리상승기와 하락기를 구별하여 투자계획을 세운다	3.12	1.117	.762	.581			
	저축방법과 투자방법이 적합한지 점검한다	3.08	1.123	.784	.615			
세금 관리 행동	절세정보가 있으면 스크랩해둔다	3.11	1.112	.584	.341	2.55	0.753	
	세금납부에 관한 계획을 세워둔다	3.75	1.064	.709	.503			
	세금납부기일은 철저히 지킨다	4.46	.811	3.808 (0.716)	.707			.500
	잘못 부과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한다	4.24	.950	.784	.614			
	절세방법을 활용했는지 점검하고 평가한다	3.49	1.088	.774	.599			
부채 관리 행동	대출에 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둔다	3.45	1.174	.676	.457	2.53	0.741	
	매월 할부금이 생활비의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3.55	1.020	.364	.133			
	부채관리를 매월 철저히 한다	3.93	1.028	3.607 (.788)	.812			.660
	대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출 계획을 세운다	3.73	1.175	.823	.678			
	1년 단위로 부채상환결과를 체크한다	3.38	1.215	.778	.606			
지출 관리 행동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3.52	1.008	.586	.544	2.52	0.747	
	소득지출을 비목별로 관리한다	4.09	.887	.631	.599			
	가계부를 기록한다	3.44	1.220	3.480 (.716)	.750			.563
	비목별 예산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3.21	.975	.830	.688			
	월말과 연말에 지출에 대한 평가를 한다	3.09	.991	.728	.530			
소득 관리 행동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오려두거나 메모해 둔다	3.11	1.126	.655	.530	2.14	0.657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소득이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3.73	.924	.734	.539			
	재산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3.77	.989	3.499 (0.651)	.675			.556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는 일에 열심을 둔다	3.18	1.062	.730	.533			
	소득관리를 위해 틈틈이 평가한다	3.70	.897	.227	.183			

신뢰성 분석결과 여섯 개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척도는 각각 0.835, 0.779, 0.753, 0.741, 0.747, 0.657의 크론바하 알파값을 보여 신뢰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가계재무관리행동별로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아이겐값이 모두 2 이상의 높은 값을 보여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부채관리 영역에 있어서 “매월 할부금이 생활비의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문항과 소득관리행동에 있어서 “소득관리를 위해 틈틈이 평가한다”는 문항의 공통치가 각각 0.133과 0.183으로 적게 나온데다가 요인적재치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들 문항을 제외하고 확장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해 본 결과 아이겐값이 각각 3.08, 2.66, 2.55, 2.53, 2.52, 2.14로 최종적으로 나타났다. 이질의 하위영역별 가계재무관리행동별로 빈도분석을 통해 평균을 구해본 결과 위험관리행동의 평균값이 4.1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3.808로 세금관리행동, 3.607로 부채관리행동, 3.499로 소득관리행동, 3.480으로 지출관리행동, 3.211로 투자관리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행동으로 보면 “세금납부기일을 지킨다”가 4.46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그 이외에 “생명보험, 연금,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해 놓았다”가 4.40, “보험료가 제때 납입되고 있는지 확인한다”가 4.38, “잘못 부과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한다”가 4.24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스크랩해둔다”가 2.7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행동으로서 유일하게 3점 이하의 평균점수로 나타났다.

2) 개인 특성별로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나는가?
 <표 3>에서와 같이 개인특성별로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차

이가 나는지 분산분석을 해본 결과 본인직업과 남편의 직업, 총재산과 본인학력, 부채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인직업의 경우 전문직 주부의 경우에 가계재무관리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과 생산직이 가장 낮은 가계재무관리행동으로 보였고 가정주부, 사무직, 기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중간 그룹을 형성하였다. 다음으로 남편의 직업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편이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가계재무관리행동을 보였다. 본인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졸과 대학원졸인 주부가 그 이외의 집단에 비해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유의미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 본인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총재산에 따른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3억 이상 5억 미만의 가계와 5억 이상 10억 미만의 가계 주부들이 그 보다 낮은 재산의 집단과 10억 이상의 많은 재산을 가진 가계의 주부들에 비해 가계재무관리 행동을 유의미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채가 있는 집단이 부채가 없는 집단에 비해 가계재무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를 진 이유가 낭비나 사치 등 가계재무관리의 부실로 인한 부채가 아니라 가계 자원의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부채를 진 경우가 많아서 부채 형성 이후에 위기감이 형성되어 부채가 없는 가계보다 가계재무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개인특성별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차이

본인직업	재무관리행동	F	유의확률	남편직업	재무관리행동	F	유의확률
가정주부	3.6856 b	4.517	0.001***	무 직		4.036	0.004**
전문직	4.0286 c			전문직	3.7157 b		
관리직	3.1185 a			관리직	3.7829 b		
사무직	3.6455 b			사무직	3.8438 b		
판매서비스직	3.6833 b			판매서비스직	3.4236 a		
생산직	3.0852 a			생산직	3.4302 a		
기 타	3.64556 b			기 타	3.6518 a		
총재산	재무관리행동	F	유의확률	본인학력	재무관리행동	F	유의확률
5,000만원 미만	3.4509 a	2.970	0.001***	국졸 이하	3.3833 a	2.357	0.042*
10,000만원 미만	3.5333 a			중 졸	3.4037 a		
20,000만원 미만	3.5455 a			고 졸	3.5753 a		
25,000만원 미만	3.5677 a			전문대 졸	3.5364 a		
3,0000 미만	3.4433 a			대 졸	3.7188 b		
50,000만원 미만	3.7613 b			대학원 졸	4.0500 b		
100,000만원 미만	4.0306 b			부채 있 다	3.5082 a	9.214	0.003**
100,000만원 이상	3.451 a			여부 없 다	3.7199 b		

*p<.05, **p<.01, ***p<.001

<표 4> 주부들의 경제적복지감 요인분석

내 용		평균(표준편차)		요인 적재치	공통성	아이겐 값	크론바 a
소득 적정감	나는 우리 가계의 한달 평균 총 수입에 만족한다	2.76(1.047)	2.65 (0.68)	.837	.700	3.504	0.893
	내 삶의 질에 대해 만족한다	3.06(.948)		.761	.579		
	나는 우리 가계의 소득 대비 저축율에 대하여 만족한다	2.85(1.005)		.831	.691		
	가계의 현재 총 자산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2.64(.999)		.855	.730		
	나는 현재생활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2.63(1.025)		.897	.804		
소득 향상감	가계경제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3.56(1.008)	3.07 (0.98)	.618	.701	3.167	0.817
	가계관리를 위한 미래 계획능력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3.16(.910)		.801	.718		
	나의 재산증식능력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2.84(.920)		.747	.686		
	재무관리능력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2.83(.920)		.737	.657		
	미래를 위한 재무계획대로 달성되어져가고 있는 편이다	3.03(.940)		.769	.586		
향후 3~5년 뒤의 생활수준은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	3.66(.944)	.671	.659				
소득 안정감	가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대해 만족한다	3.08(1.119)	2.57 (0.65)	.816	.667	2.828	0.804
	위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할 능력에 대해 만족한다	3.11(1.014)		.790	.624		
	가계소득이 규칙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3.38(1.100)		.753	.566		
	현재 매달 지불되는 월부채 상환 금액이 가게 운영에 부담이 된다	3.26(1.172)		.643	.413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경우 쓸 준비금이 마련되어 있다	3.21(1.075)		.747	.558		

3.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 결과

1) 주부들의 경제적복지감은 어떠한가?

<표 4>에서 보듯이 주부들의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분석 결과 개별 항목으로 보았을 때는 “향후 3-5년 뒤의 생활수준은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항목이 3.66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가계경제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항목이 3.56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반면 “나는 현재생활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는 2.63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항목이었다.

경제적복지감에 대한 각 항목이 세 하위 영역으로 묶여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소득 적정감, 소득향상감, 소득안정감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하위영역별 아이겐값은 3.054, 3.167, 2.828로 양호한 값을 보여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공통성에서도 특이할 만한 항목은 없었다. 다음으로 각 하위영역별로 신뢰성 분석을 해본 결과 각각 크론바하 알파값이 0.893, 0.817, 0.804의 비교적 높은 값이 나와 신뢰성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하위 영역별로 평균값을 내어보면 소득향상감이 3.07로 3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값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하위영역은 모두 3점 이하의 평균 점을 보였으며 소득적정감이 2.65, 소득안정감이 2.57 순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경제적 복지감의 차이

<표 5>에서 보듯이 개인특성별로 경제적 복지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본인직업, 남편직업, 본인소득, 남편소득, 본

인학력 그리고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특성으로 총재산, 부채 여부, 부채액, 자가주택가치, 전세가치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인직업의 경우 전문직 여성인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직업군들 사이엔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경우에만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그이외의 집단에서는 전업주부와 직업군별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남편의 직업에 있어서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업군에서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경제적 복지감을 보였으며 그 이외의 직업군별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본인소득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오히려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100만원 이상의 자기 소득을 올리는 주부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주부나 전업주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경제적 복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직업 주부인 경우는 전업주부들보다 오히려 경제적 복지감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형 직장 주부인 경우가 많은 이유도 있고 바쁘고 힘든 생활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남편의 소득의 경우는 차례대로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경제적 복지감을 보였다. 이는 경제적 복지감이 남편의 소득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인학력을 보면 국졸이하가 가장 낮은 경제적 복지감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중졸, 고졸, 전문대졸 사이에는 차이가 없이 중간 그룹을 형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졸집단이 높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최고학력의 주부들에게서 경제적 복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 5> 개인특성별 경제적복지감의 차이

본인직업	경제적복지감	F	유의확률	남편직업	경제적복지감	F	유의확률
가정주부	3.1856 a	4.517	0.001***	무 직		4.036	0.004**
전문직	4.1250 b			전문직	3.0208 b		
관리직	2.8693 a			관리직	3.0593 b		
사무직	2.9333 a			사무직	3.1383 b		
판매서비스직	2.9514 a			판매서비스직	3.1243 b		
생산직	3.1075 a			생산직	2.8235 a		
기 타	3.1927 a			기 타	3.1518 b		
본인소득	경제적복지감	F	유의확률	남편소득	경제적복지감	F	유의확률
없 다	3.0111 b	6.190	0.000***	200만원 미만	2.6903 a	9.571	0.000***
50만원 미만	2.7869 a			300만원 미만	3.0109 b		
100만원 미만	2.8818 a			400만원 미만	3.0713 b		
200만원 미만	3.2122 c			500만원 미만	3.3021 c		
200만원 이상	3.3210 c			500만원 이상	3.5725 o		
총재산	경제적복지감	F	유의확률	본인학력	경제적복지감	F	유의확률
5,000만원 미만	3.0509 a	2.970	0.001***	국졸 이하	2.5394 a	2.357	0.042*
10,000만원 미만	3.1333 a			중 졸	3.0022 b		
20,000만원 미만	3.5455 b			고 졸	3.0118 b		
25,000만원 미만	3.5677 b			전문대졸	3.0625 b		
30,000만원 미만	3.4433 b			대 졸	3.4391 c		
50,000만원 미만	4.1313 d			대학원졸	4.1146 d		
100,000만원 미만	4.0306 d			부채 있 다	3.5082 a	9.214	0.003**
100,000만원 이상	3.781 c			여부 없 다	3.7199 b		
부채액	경제적복지감	F	유의확률	자가주택가치	경제적복지감	F	유의확률
300만원 미만	2.938 b	2.459	0.005**	10,000만원미만	2.8003 a	6.029	0.000***
1,500만원 미만	2.9542 b			15,000만원미만	2.9009 a		
3,000만원 미만	3.058 b			20,000만원미만	3.0500 a		
5,000만원 미만	2.7121 a			25,000만원미만	3.1000 a		
5,000만원 이상	2.7292 a			50,000만원미만	3.3864 b		
				50,000만원이상	3.5446 b		
전세가치	경제적복지감	F	유의확률				
2,000만원 미만	2.5438 a	3.305	0.045*				
5,000만원 미만	3.0132 b						
5,000만원 이상	33.0553 b						

*p<.05
**p<.01
***p<.001

앞서 설명한 주부 본인의 직업에 따른 경제적 복지감에서 전문직 주부인 경우에만 유일하게 경제적 복지감이 높았던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문직의 경우는 대학의 학력과 높은 상관이 있고 학력이 높고 전문직이고 소득이 높은 여성이 경제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음은 가계의 경제적 형편과 관련된 변수로서 총재산의 경우를 먼저 보면 총재산이 5천만원 미만인 가계와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가계의 주부들 간에는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 복지감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 이상에서 3억 미만인 가계가 그 다음 그룹을 차지하였고 3억 이상에서 10억 미만의 가계가 가장 높은 경제적 복지감을 보이다가 총재산이 10억원이 넘어가면 경제적 복지감이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총재산이 늘어나면 비례하게 경제적 복지감이 늘어나지만 일정수준(여기서는

10억원이 기준인 듯) 이 넘어가면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경제적 복지감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10억 정도의 재산이 만들어지면 재산의 증가에 의한 만족감 이외에 부가적인 삶의 심리적 충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다음으로 부채에 대해 알아보면 단순히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경제적 복지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채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부채액에 따른 차이를 보면 3천만원 이상인 집단이 3천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천만이 현대 도시 가계의 평균 가계년 소득과 유사한 금액이므로 일년 년 소득 이하의 부채액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으나 그 금액을 넘어가면 경제적 복지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해석해 본다. 다음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금전적 부동산 가치나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 복지감에 차이가 나타

났는데 자가주택인 경우는 2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가계가 그 이상인 가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경제적 복지감을 나타내었다.

4. <연구문제 3>에 대한 연구 결과

1) 재무관리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표 6>에서 보듯이 경제적 복지감과 가계재무관리행동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본 결과 수정된 총 설명력은 7.2%였으며 유의수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의 각 하위영역별로 세분화해보면 소득관리행동과 투자관리행동이 경제적복지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타값은 각각 0.218과 0.261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 - Watson값도 2점에 가까운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인과식은 다음과 같다.

$$\text{경제적복지감} = 0.218 \times \text{소득관리행동} + 0.261 \times \text{투자관리행동} + 2.281$$

즉 경제적복지감은 소득관리행동과 투자관리행동을 1기분단위 많이 할수록 각각 0.218씩과 0.261씩 합하여 0.479씩 더 높은 경제적 복지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하위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의 상대적영향력

<표 7>에서 보듯이 소득적정감과 가계재무관리행동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본 결과 수정된 총 설명력은 7.3%였으며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의 각 하위영역별로 세분화해보면 투자관리행동이 소득적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타값은 0.302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 - Watson값도 2점에 가까운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적정감에 대한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인과식은 다음과 같다.

$$\text{소득적정감} = 0.302 \times \text{투자관리행동} + 2.150$$

즉 소득적정감은 투자관리행동을 1기분단위 많이 할수록 0.302만큼씩 더 높은 소득적정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소득향상감과 가계재무관리행동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본 결과 수정된 총 설명력은 6.0%였으며 유의수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의 각 하위영역별로 세분화해보면 소득관리행동이 소득향상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타값은 0.169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 - Watson값도 2점에 가까운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향상감에 대한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인과식은 다음과 같다.

<표 6>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B	Beta	P	Adj.R ²	Durbin Watson	F
상 수	2.281		.000			
소득관리행동		.218	.050			
세금관리행동		-.108	.248			
지출관리행동		.019	.849	0.072	2.024	3.825
투자관리행동		.261	.003			(p=0.001)***
부채관리행동		-.112	.133			
위험관리행동		.083	.270			

*p<.05, **p<.01, ***p<.001

<표 7> 소득적정감에 대한 재무관리행동의 상대적영향력

	B	Beta	P	Adj.R ²	Durbin Watson	F
상 수	2.150		.000			
소득관리행동		.009	.917			
세금관리행동		-.067	.480			
지출관리행동		-.035	.721	0.073	2.015	2.783
투자관리행동		.302	.001			(p=0.010)*
부채관리행동		-.072	.341			
위험관리행동		.054	.478			

*p<.05, **p<.01, ***p<.001

<표 8> 소득향상감에 대한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B	Beta	P	Adj.R ²	Durbin Watson	F
상수	2.605		.000			
소득관리행동		.169	.050			
세금관리행동		-.160	.092			
지출관리행동		.098	.321	0.06	2.041	2.143 (p=0.050)*
투자관리행동		.118	.184			
부채관리행동		-.056	.458			
위험관리행동		.016	.834			

*p<.05, **p<.01, ***p<.001

<표 9> 소득안정감에 대한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B	Beta	P	Adj.R ²	Durbin Watson	F
상수	2.105		.000			
소득관리행동		.102	.225			
세금관리행동		-.055	.544			
지출관리행동		-.013	.894	0.125	2.024	5.115 (p=0.000)***
투자관리행동		.268	.002			
부채관리행동		-.176	.016			
위험관리행동		.147	.047			

*p<.05, **p<.01, ***p<.001

소득향상감 = 0.169×소득관리행동+2.605

즉 소득향상감은 소득관리행동을 1기분당위 많이 할수록 0.169만큼씩 더 높은 소득향상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소득안정감과 가계재무관리행동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본 결과 수정된 총 설명력은12.5%였으며 유의수준 p<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의 각 하위영역별로 세분화해보면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이 소득안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타값은 각각 0.268과 0.147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 - Watson값도 2점에 가까운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안정감에 대한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인과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안정감 = 0.268×투자관리행동+0.147*위험관리행동
+2.105

즉 소득안정감은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1기분당위 많이 할수록 각각 0.268씩과 0.147씩 합하여 0.415씩 더 높은 소득안정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먼저 주부들의 가계재무관리행동의 경우 타당성과 신뢰성이 모두 입증된 6개의 하위영역인 위험관리, 투자관리, 세금관리, 부채관리, 지출관리, 소득관리로

구분이 되었다. 이들의 하위영역별 가계재무관리행동의 평균을 구해본 결과 위험관리행동의 평균값이 4.1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3.808로 세금관리행동, 3.607로 부채관리행동, 3.499로 소득관리행동, 3.480으로 지출관리행동, 3.211로 투자관리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행동으로 보면 “세금납부 기일을 지킨다”가 4.46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그 이외에 “생명보험,연금,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해 놓았다”가 4.40, “보험료가 제때 납입되고 있는지 확인한다”가 4.38, “잘못 부과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한다”가 4.24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스크랩해둔다”가 2.7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행동으로서 유일하게 3점 이하의 평균점수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별로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나는지 분산분석을 해본 결과 본인직업과 남편의 직업, 총재산과 본인학력, 부채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인직업의 경우 전문직 주부의 경우에 가계재무관리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과 생산직이 가장 낮은 가계재무관리행동으로 보였고 가정주부, 사무직, 기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중간 그룹을 형성하였다. 다음으로 남편의 직업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편이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가계재무관리행동을 보였다. 본인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졸과 대학원졸인 주부가 그 이외의 집단에 비해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유의미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 본인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총재산에 따른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3억 이상 5억 미만의 가계와 5억 이상 10억 미만의 가계 주부들이 그 보다 낮은 재산의 집단과 10억 이상의 많은 재산을 가진 가계의 주부들에 비해 가계재무관리 행동을 유의미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채가 있는 집단이 부채가 없는 집단에 비해 가계재무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를 진 이유가 낭비나 사치 등 가계재무관리의 부실로 인한 부채가 아니라 가계 자원의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부채를 진 경우가 많아서 부채 형성 이후에 위기감이 형성되어 부채가 없는 가계보다 가계재무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제적 복지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소득 걱정감, 소득향상감, 소득안정감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소득향상감이 3.07로 3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값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하위영역은 모두 3점 이하의 평균점을 보였으며 소득걱정감이 2.65, 소득안정감이 2.57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항목으로 보았을 때는 “향후 3-5년 뒤의 생활수준은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항목이 3.66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가계경제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항목이 3.56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반면 “나는 현재생활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는 2.63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항목이었다.

개인특성별로 경제적 복지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본인 직업, 남편직업, 본인소득, 남편소득, 본인학력, 총재산, 부채여부, 부채액, 자가주택가치, 전세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인직업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경우에만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남편의 직업에 있어서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업군에서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경제적 복지감을 보였다. 본인소득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오히려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100만원 이상의 자기 소득을 올리는 주부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주부나 전업주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경제적 복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소득이 낮은 직업 주부인 경우는 전업주부들보다 오히려 경제적 복지감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형 직장 주부인 경우가 많은 이유도 있고 바쁘고 힘든 생활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남편의 소득의 경우는 차례대로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경제적 복지감을 보였다. 본인학력을 보면 국졸이하가 가장 낮은 경제적 복지감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중졸, 고졸, 전문대졸 사이에는 차이가 없이 중간 그룹을 형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대

졸집단이 높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최고학력의 주부들에게서 경제적 복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재산의 경우를 보면 총재산이 1억 미만인 가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 복지감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 이상에서 3억 미만인 가계가 그 다음 그룹을 차지하였고 3억 이상에서 10억 미만의 가계가 가장 높은 경제적 복지감을 보이다가 총재산이 10억원이 넘어가면 경제적 복지감이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총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복지감이 높아지지만 일정수준(여기서는 10억원이 기준인 듯) 이 넘어가면 재산의 증가에 의한 만족감 이외에 부가적인 삶의 심리적 충족을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부채유무에서는 부채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에 따른 차이를 보면 3천만원 이상인 집단이 3천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가주택가치의 경우 2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경제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가계가 그 이상인 가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경제적 복지감을 나타내었다.

경제적 복지감과 가계재무관리행동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본 결과 수정된 총 설명력은 7.2%였으며 유의수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의 각 하위영역별로 세분화해보면 소득관리행동과 투자관리행동이 경제적복지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타값은 각각 0.218과 0.261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자관리행동이 소득적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관리행동이 소득향상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이 소득안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경제 자원적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 유형을 보였으며 또한 가계재무관리 행동에 따라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 경제적 복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가 가진 자원의 양에 따라 경제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재무관리행동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재무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복지감이 달라졌다. 이는 가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은 단기간 내에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통해 가계의 재무 상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적 복지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하위 영역에서 재무관리를 하여야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자원, 능력내에서 효율적으로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관리와 투자관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관리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득관리방법과 투자방법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 주부에 한정되어 있는 연구이고 경제적 복지감도 주관적인 측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 분석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가계재무지표를 연구 개발하고 소득자산과 투자 자산 관리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자(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단기 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11(1)**, 107-118.
- 김경자(2003).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 인지와 보험료 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43-51.
- 김영득(2003). 원주시 노인의 여가활동실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박미선(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경옥·정용선(1999). 한국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8(1)**, 81-93.
- 이경옥(2000).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옥(2004). 주부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903-915.
- 이기춘(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학현사
- 이상협(1999). 도시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71-84.
- 이종혜(1993). 도시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1987).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 생활만족. 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정빈·조미환(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13(3)**, 156-169.
- 정미선(2006).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행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동필(2003). 도시 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측정 및 관련 변수 연구 -경기도 용인,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회, 2(1)**, 13-35.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_____(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 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_____(1995). 도시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 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ard, D. M. & Firebaugh, F. M. (1978).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ic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measurement instru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3). 192-205.
- Davis E.P. & Helmick S.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allyn and bacon, inc.
- Fitzsimmons, V. S., Leach, L. J.(1994) Net worth change : beginning and expanding life cycle stag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 Hafstrom, Jean L. & Dunsing, Marilyn M.(1973). Level of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4), 119-132.
- Johnson P.J.(1989). Changes in financial practices : southeast asian rehuges, *Home Economics Eesearch Journal*, 17(3), 241-252.
- Lown J.M.(1986). Family financial well-being : guidance from research. *Journal of Home Economics*, No 4, 5-8.
- Marlowe J. & Godwin D.(1988).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1), 95-109.
- Pigou, A. G.(1938). The economics of welfare(4th ed.). London: MacMillan.
- Stampfl, R.W.(1983). Consumer science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invitational symposium,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Strumpel & Burkhard(1973), Economic life - styles,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 an empirical approach", family economic behavior : problems and pers-

- pects, philadelphia : lippincott, 69 - 125.
- Titus, P. M., Fanslow(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2, 1099-1115.
- Walson C. O. & Fitzsimmons, V. 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 Wilhelm M.S., Iams D.R., Rudd J.(1987). Husband and wife agreement on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1), 13-22.
- Williams, Nall M. & Deck P. Z.(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185-196.
- <http://kr.dic.yahoo.com/>

- 접수 일 : 2009년 12월 24일
- 심사 일 : 2010년 02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4월 20일